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오늘부터 정상가동

난방공사, 항소심 승소...발전소 가동 적법성 확보 따른 결정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적자로 더 이상 가동 미룰 수 없어”
 SRF 사용저지 공대위 내일 대규모 규탄집회 열고 투쟁 예정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환경권과 건강권 침해를 우려한 지역주민 반대와 소송 등으로 장기간 멈춰선 '나주 SRF(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 정상화를 예고했다. 난방공사는 28일 황창화 사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29일부터 발전소를 정상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일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함으로써 발전소 가동에 대한 법적 요건을 확보한데 따른 결정이다. 황창화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법원 판

결을 통해 발전소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상의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했다”며 “특히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막대한 적자와 추가하락 등 상장회사로서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해 더 이상 가동을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난방공사는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열공급과 공기업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이다. 또 주민 요청이 있을 경우 투명한 발전소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에 동참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원방안을 국·도·지·자체·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난방공사의 발전소 정상 가동이 임박해지자 '나주 SRF사용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나주혁신도시 빛가람 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SRF 발전소 가동저지 나주시민 총궐기 집회'를 열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나주시도 지난달 항소심 패소 이후 대법원 상고를 확정할 가운데 난방공사가 발전소를 정상 가동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박남진기자

광주, 코로나 4차 집중률 20.9% 특·광역시 중 최고
 전국 15.1% 크게 웃돌아

광주지역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률이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4차 접종을 시작한 이후 전날까지 접종률(확진자 제외)은 20.9%로, 전국 평균 15.1%, 특·광역시 평균 12.3%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4차 접종률은 54.7%로, 전국 평균(48.0%)과 특·광역시 평균(42.9%)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고위험시설의 집단 감염 증가와 추가 접종에 소극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미접종 대비 3차 접종 위중증률과 사망률이 낮다는 공감대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설득 노력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전국적으로 미접종 확진자 대비 3차 접종자들의 위중증 예방효과는 92.0%, 사망 예방효과는 92.9%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코로나19 누적치명률 또한 전국 평균 0.13% 보다 낮은 0.10%를 기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환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전체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서 위중증 환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신속대응팀 운영을 강화하고 중증병상을 효율화하는 등 위중증·사망자 최소화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이달 주 시 복지건강국장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을 때도 위험성이 높은 기저질환자나 면역저하자, 고위험군의 경우 4차 접종의 이득이 크다는 데는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는 만큼 4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유나기자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수선화 만개 있다. (사진=구례군청 제공)

3월의 마지막 주말인 27일 비대면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전남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꽃 군락지에 인접한 지리산치즈랜드에 수선화가 만개한 가운데 봄꽃을 찾아온 상춘객들이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봄날을 만끽하고 있다.

광주 2020년부터 인구자연감소 현상... '사망자↑·출생아↓'

2020 총 출생 7318명·사망 7785명
 광주지역 출생아 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자연감소 현상'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광주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2021 광주 성인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총 출생아는 7318명, 사망자는 7785명으로 집계돼 사망자가 467명 많아 인구자연감소 현상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출생아는 지난 2010년 1만3979명에서 2015

년 1만2441명, 2019년 8364명으로 꾸준히 감소했으며 사망자는 같은 기준 6532명, 7443명, 7635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2020년 기준 가장 많은 출생아를 기록한 지역은 광산구로 2318명(31.7%)이었으며 북구 2220명(30.3%), 서구 1336명(18.3%), 남구 951명(13%), 동구 493명(6.7%) 순이다. 출산 연령대는 30~34세, 35~39세 순으로 30대 이상으로 이동했으며 2020년에는 40~44세 출산율이 20~24세를 앞섰다.

사망자는 10대와 20대, 60대가 지난 2019년에 비해 증가했으며 80대 이상이 전체 사망자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2020년 기준 광주지역 인구는 145만 62명으로 여성 73만2714명(50.5%), 남성 71만 7348명이다. 자치구별로는 북구 43만431명, 광산구 40만 5579명, 서구 29만6576명, 남구 21만4579명, 동구 10만2897명 순이다. 최이슬기자

“완치 3주 지나도 아파”
 코로나 후유증 계속되는 ‘롱 코비드’ 겪는 사람들

코로나19 누적확진자 1200만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간이 지나도 후유증이 계속되는 ‘롱 코비드(코로나 감염 후유증)를 겪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코미디언 박명수는 지난 27일 KBS 라디오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격리 해제 후에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털어놨다.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친 박명수는 지난 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명수는 “코로나가 완치된 지 3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코맹맹이 소리가 난다. 기침이 나고 답답하다. 지금도 약을 먹는다. 쉽게 볼 게 아니다. 무증상이거나 가볍게 지나가면 천만다행이다. 정말 아프다”고 토로했다.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 김모씨 역시 격리해제 후 일주일 이 지났지만 여전히 증상을 겪고 있다. 김씨는 “잔기침과 전신 피로감으로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를 정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에 시달렸는데, 그 후 갑자기 생리를 일주일 일찍 시작하게 됐다”며 “후유증이 오래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SNS 등 온라인 상에도 격리해제 이후 증상이 지속된다며 호소하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 WHO는 코로나19 감염 후 후유증이 3개월 이내 발생해 최소 2개월 동안 지속되는 증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롱 코비드’의 증상은 심한 피로, 흉통, 심근염, 두통, 건망증, 우울증, 후각 상실, 발열, 설사, 귀 울림 등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진료체계에서는 후유증을 빨리 치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최근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시 0.2~2% 정도의 대뇌피질이 축소하면서 후각, 인지기능 등에 손상이 생긴다. 그래서 경증 환자들도 기억력이 떨어지고 냄새를 못 맡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은미 교수는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검사비 등은 건강보험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 일정 기간은 코로나에 대한 산정특례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동취재본부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